

“정교분리, 종교의 정치 발언 금지 의미 아니다”

정교분리 바로 알기 세미나 열려... “국가의 종교 간섭 금지가 본래 취지”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와 종교인의 사회 참여 문제를 헌법과 역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종교의자유수호위원회(종수연), 법치와자유, 한국교회연론회 등 단체들은 13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정교분리 바로 알기 기자회견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조계와 교계 인사들이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적 의미와 종교의 공적 역할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자회견과 2부 학술 세미나로 진행됐으며, 세미나에서는 종교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역사적 사례가 폭넓게 다뤄졌다.

◆“정교분리 오해가 종교의 공적 발언 위축”

첫 발표에 나선 이호선 교수(국민대)는 “정교분리는 이름의 침묵 강요-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위헌성과 독일 설교 조항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종교의 공적 발언을 금지하는 원칙처럼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종교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지 종교인의 사회적 발언을 금지하는 규범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 종교 단체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규정이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제국 시절 존재했던 설교조항(Kanzelparagraph, 형법 제130a조)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성직자가 설교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 있었지만, 이후 표현의 자유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교분리는 종교를 침묵시키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종교인의 공적 발언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 정교분리, 종교 활동 금지 아니”

전운성 겸임교수(숭실대)는 “정교분리 규정의 개정 방향(안)-대한민국 헌법 정교분리 조문의 성격과 해석 및 왜곡된 헌법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규정이 종교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종교인의 정치 참여나 사회



세미나 참석자들. (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홍 목사, 박준준 목사, 오정호 목사 © 김상고 기자

적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헌법 해석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해석이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중립성”이라며 “종교인의 사회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교분리 조항에 대한 해석 정립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정교분리 해석 균형 필요”

발표 이후에는 황도수 교수(건국대), 신우철 교수(중앙대), 신동천 교수(한동대),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고 기자

김용원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심도섭 변호사(예자연 법률위원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적 의미와 종교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 공직선거법 규정의 해석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 중립 원칙 사이의 균형, 종교인의 공적 발언과 정치 참여 문제 등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종교의 공

적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영준 변호사는 특히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 종교단체의 직무상 자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규정이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종교인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며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종교인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회는 사회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

세미나에 앞서 김경길 목사(종수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1부 기자회견에는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김승규 변호사(전 법무부 장관), 양병희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 박준준 목사(분당 갈보리교회 원로), 심하보 목사(대광기독교 대표회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김진홍牧사는 “정교분리라는 상식적인 문제를 두고 세미나까지 열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사회적 사명을 감당해 왔으며 지금도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준 원로목사는 “교회는 정치를 억압할 수 없고 정치도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교회는 세상의 악을 보고도 침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거룩한방파제 철야기도회 “차별금지법 반대, 진리의 외침”

13~14일 파주 오산리금식기도원에서 열려

“거룩한방파제 연합금식철야기도회”가 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산리금식기도원에서 열렸다.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했으며, 무엇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간구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기도회는 ‘22대 국회 역대 최악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와 설교, 특강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8일엔 서울시의회와 대한문 인근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린다.

기도회 대회장인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개회 메시지에서 구약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말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 외쳤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다”며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

이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진리를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룩한 방파제 운동에 대해 교회 안에서도 이를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하며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옳고 그름이라는 진리를 외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특정 정치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메시지를 전한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는 한국교회가 시대적 위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이 오른다고 기뻐하면서 차별금지법 통과와 위협 속에서도 침묵하는 것은 옆집이 불타는데도 웃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했다.

박 목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하며 부를 쌓으려 했던 친일파와 같은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수 그리

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죄인 중의 죄수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빛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 수직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파수꾼처럼 깨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독교 악법을 막기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기도회에서는 준비위원장 이영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공동준비위원장 김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등이 특강을 통해 차별금지법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회



김운성 목사.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회



박한수 목사.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회

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 등 여러 메시지 전달자들은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도회는 차별금지법 저지와 한국교회, 다음세대, 국가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노형구 기자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로/코팅액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